

FGD 활용 교육 선진국의 미래 교육 동향 탐색*

김영순**·윤현희***·이영희****

요 약

본 연구는 교육 선진국의 미래교육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 위해 전문가 집단 토의(FGD: Focus Group Discussion) 방법을 채택하였다. FGD를 위해 교육 선진국과 통합교육의 전문가 6명을 섭외하여 토의를 진행하였다. FGD 분석 결과 교육 선진국의 교육 동향을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제도 세 가지 범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시민교육과 진로교육을 강조하며 방법적으로는 통합적 교수방법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도 측면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 개별화 교육을 통한 교육 불평등 감소 노력이 행해지고 있었다. 해외 교육 동향 분석을 통해 미래교육 방향이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 현재의 문제점 고찰을 통한 정책 개선, 교육 불평등 감소를 통한 사회통합 지향, 교육정책과 운영을 총괄하는 중심타워 설립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래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목표가 설정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비전 수립에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 이에 해외의 사례와 정책들을 참고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 : 교육 선진국, 교육동향, 미래교육, FGD

I. 서 론

세계경제포럼 의장 클라우스 슈밥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속도가 기존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창하였다(KERIS, 2017). 4차 산업혁명은 학문이나 생활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과 혁신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진보와 혁신의 흐름은 교육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많은 나라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 정책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므로

* 본 연구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수행된 ‘유·초·중등교육분야 미래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보고서 4장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미래 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계보경 외, 2011).

김진숙(2017)은 4차 산업혁명의 속도와 그 적용 범위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교육체제로 인재양성을 하게 되면 국가적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라는 인식하에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강조하였다(KERIS, 2017).

한국교육개발원(2016)에서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미래교육 전망과 우리 교육문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 방향과 추진전략을 ①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교육의 유연화, ② 학습자의 사고력·문제해결력·창의력을 신장하는 교육의 자율화, ③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의 개별화, ④ 정보 기술분야 핵심인재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전문화, ⑤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을 위한 교육의 인간화, 5가지로 제시하였다.

국제미래학회와 KERIS(2017)는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을 제안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 산업, 사회, 문화, 가치관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교육의 총체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유연한 학제, 자율적 교육과정과 평가,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자율적 맞춤 입시제도와 혁신적 대학제도, 다양한 장학 복지 변화가 구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그리고 미래교육 콘텐츠 혁명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창의적 인지 역량, 인성적 정서역량, 협력적 사회역량, 생애학습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와 학계의 교육 변혁에 관한 연구의 흐름은 세계 교육 선진국들의 미래교육 동향 분석과도 병행된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에서는 해외 교육 선진국들의 동향과 사례를 탐색하고 있다.¹⁾ 해당 자료들은 각 국가에서 발간되는 교육 관련 신문기사나 연구기관의 자료들을 요약, 제시한 수준에 그친다. 또한, 영역이나 주제별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동향에 관한 종합적 접근이나 분석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미래 교육과 학교체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선진국의 교육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미래교육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독일,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5개국²⁾의 국제 교육의 동향 및 구체적인 사례를 심도 깊게 접근하였으며, 국제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 사회적 요구 등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 해외교육동향 - 국가별 교육동향
<http://edpolicy.kedi.re.kr/frt/boardList.do?strCurMenuId=55> (검색일: 2018.7.25.)

2) 5개국 선별 기준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 해외교육동향 - 국가별 교육동향]의 대상이 되는 10개국 중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대륙의 국가들을 골고루 선정하였다.

의 비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우리나라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교육 선진국의 미래교육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강조점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미래교육 담론 형성의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교육 선진국의 학교 혁신 방향, 교육 선진국의 교육 영역별 혁신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담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 선진국의 학교 혁신에 관한 분석을 위해 국제기구의 교육 관련 문서, 국제 교육포럼 미래교육 내용, 미래교육 관련 인터넷 기고문, 국제교육 동향 관련 국내 문헌 등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³⁾. 다음 <표 1>은 교육 선진국의 학교 혁신 방향을 분석하여 재구성한 결과이다.

<표 1> 교육 선진국의 학교 혁신 방향

영역	내용
교육과정 운영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한 학습자원 활용
교수학습 실천	온오프 융합, 주제간 융합, 협력학습 등을 활용한 개별학습
학습평가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 수행 중심 평가 보편화
교사의 역할	학습 촉진자, 학습 관리자, 학습 포트폴리오 관리자
학교의 역할	지역사회와 결함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기회 확대
학습자의 학습 경험	형식과 비형식,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 선진국의 학교 혁신 방향은 교육을 실행하는 기관과 주체들의 역할을 제시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과 실천, 평가 측면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모든 영역에서 학습자를 강조하며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혁신의 방향을 보여준다. 또한, 다음 <표 2>는 교육 선진국의 교육 혁신의 내용을 영역별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 교육 선진국의 교육 혁신 내용

영역	내용
교육방향 및 목적	- IT 관련 지식 습득과 활용 역량 강화

3) II장에 제시된 내용은 ‘UNESCO(2006). Road Map for Arts Education, UNESCO(2010).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UNESCO(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 and learning objectives, 조규복(2016). 주요국의 미래학교 동향과 시사점’ 참고문헌을 분석, 정리하였다.

	- 미래 직업에 대비하는 인재 양성교육
교육내용 (교육과정)	- 디지털 학습자와 디지털 시민 양성을 위한 디지털교육 -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각종 지식과 기능 교육 강조
교육방법	- 디지털 매체 및 로봇 활용 수업 - 테크놀로지와 데이터를 활용한 개별화 학습
교육평가	- 테크놀로지 기반 평가, 핵심역량 중심 평가, 과정중심 평가
진로·직업교육	- IT 관련 교육과정 정비, 교육부-노동부 연계 평생학습 지원 - 실천적 직업교육, 개별화된 직업 역량 교육

<표 2>를 통해 우리는 교육 선진국들이 학교 혁신을 통해 교육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학습자 중심의 혁신 방향을 근간으로 하여, 4차 산업 혁명에 대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즉, 미래교육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며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미래 시민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

요약하자면, 교육 선진국의 학교 변화 방향은 각 국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 개발 및 적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교육 선진국들은 교육방향 및 목적, 교육내용(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진로·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 영역 별로 구체적인 교육혁신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FGD 방법을 채택하였다. FGD 방법은 전문가 집단 토의(Focus Group Discussion)라 일컫는다. 이 방법은 심층적 파악이 필요한 초점 주제에 관해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토의를 진행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특히 탐색적 연구에 유용하다(김영순 외, 2018).

전문가 집단 토의(FGD)를 위해 교육 선진국과 통합교육의 전문가 6명을 섭외하였으며, 2018년 3월 17일 11:00~13:30, 총 2시간 30분 동안 FGD를 실시하였다. 토의 주제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FGD 실시 전, 전문가들에게 교육 선진국의 미래교육 동향과 비전에 관한 분석 결과 및 준비사항을 공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심도 있게 끌어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FGD에 참여한 전문가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교육 선진국 미래교육 FGD 참여 전문가 현황

번호	전문가 구분		영역
	소속 및 직위	성별	
1	○○대학교 부교수	여	프랑스 교육
2	○○대학교 교수	남	독일 교육
3	○○○대학교 교수	남	영국 교육
4	○○교육대학교 조교수	여	싱가포르 교육
5	○○대학교 부교수	여	미국 교육
6	○○대학교 교수	여	통합(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모두 교대 또는 사범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나 분야에서 장기간 수학하고 연구한 경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FGD는 ‘[사전준비] FGD 주제와 목적에 맞는 전문가 선정 및 섭외 - [진행] 전문가 집단과 함께 주제에 관한 심층토의 - [결과분석] 토의내용에 관한 분석 및 정리’의 절차로 진행되었다(조성남, 2006). FGD 인터뷰는 ‘교육 선진국의 교육동향 - 미래교육 비전 및 인제상 - 교육 선진국의 교육사례 -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 4단계 설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FGD 분석을 위해 토의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종료 후 전체 토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질적 분석방법인 매트릭스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데이터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국가와 주제 항목을 기준으로 표를 작성하며 자료의 범주화 및 조직화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1차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 재설정, 내용 이동 등 연구자들 간의 검토를 거쳐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IV. 교육 선진국의 교육 동향 분석 결과

1. 교육 선진국의 교육 동향

교육 선진국의 교육 동향 파악을 위한 FGD 분석결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제도 세 가지 범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교육의 초점 및 미래교육의 방향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국가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에 대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선진국의 교육 동향 분석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육 선진국의 교육 동향 분석

주제	내용	특성
교육내용	시민교육	참여와 연대 강조
	진로교육	학습자 중심 진로교육
교육방법	통합적 교수방법	융합적 교수법 적용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교육제도	Education for all	교육 불평등 감소
	학습자 맞춤형 교육	수준별, 개별화 교육
	입시제도 개선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입시제도
	교사의 질 향상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교육 강조

가. 교육내용

교육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교육내용 영역은 시민교육, 리터러시교육, 진로교육으로 분석되었다. 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포함하는 공통성이 있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기르려는 측면에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함을 알 수 있었다.

1) 시민교육

교육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민교육을 기반에 두고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교육은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임과 동시에 교육에서도 지향하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생활화 할 수 있는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이 민주시민, 다문화시민, 세계시민, 미래시민 등 다양한 뜻을 내포한 개념이며, 시민교육도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등 국가적 차원의 사회와 지구적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역량을 가진 시민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죠. 그것이 프랑스 시민 혁명이예요. 자유평등 관계이 고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가 핵심 키워드죠. 프랑스에서 굉장히 강한게 시민교육이예요. (중략) 시민교육은 민주 시민이죠.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해요. (전문가 1 - 프랑스)

시민교육은 독일은 정치 교육이라는 말을 쓰죠. 연방 정치 교육원이 있고 센터들이 있고 거기서 많은 학교의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학교 안에서는 교과 형태로 있기 보다는 관련된 과목을 주마다 지정을 해서 그 과목을 하나정도는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서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 같아요. (전문가 2 - 독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유럽의 교육 선진국에서 시민교육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참여’라고 하였다. 참여는 정치와 사회문제에 방관하거나 무관심 하지 않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과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다.

영국은 citizenship education으로 시민성 교육, 또는 시민 교육이란 이름으로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고 어떤 다문화 이런 용어 보다는 연대, 통합, 포용 (전문가 3 - 영국)

정치 교육에서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회 문제, 정치에 대한 비판 능력, 판단 능력 그리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참여 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바뀌니까요. (전문가 2 - 독일)

정치와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는 사회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므로 중요하고, 참여와 연대는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따라서 교육적 차원에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시민교육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 진로교육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진로교육이 학습자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단순 기술 교육이나 투입 차원을 넘어서서, 진로와 직업 탐색에 직접 관련되고 이에 요구되는 능력을 적성에 맞게 선택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그 동안의 진로교육이 아이들을 노동시간에 단순 투입을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단순 투입했더니 제대로 고용의 지속성이 안 되더라. 지속적인 교육 트레이닝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맞춰 자신들의 직업적인 스킬이나 필요 되는 needs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교육 지원의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미래비전의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1 - 프랑스)

미국도 직업교육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그 직업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죠. 선택, comprehensive school 개념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듣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처럼요. (전문가 5 - 미국)

또한, 진로 선택에 있어 선택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의 내용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기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 주도의 진로교육 강조는 자기 주도적 진로 결정으로 연계되는 특성을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결정해요. 영국은 16세가 되면 거의 자율권을 가져요.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고 (중략) comprehensive school은 대학 갈 사람은 공부하고 직업 diploma를 받을 사람은 직업교육을 하게 되는 (전문가 3 - 영국)

독일 학교 교육 기간이 9년이다, 3~4년이 직업 의무 교육이 또 있어요. 9년 마치고 졸업하는 데가 있고, 10년 마치고 졸업하는 데가 있고, 대학가는 12~13년을 맞추고 가야 하니까 나머지 먼저 간애 들은 직업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서 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18세까지는 직업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예요. (전문가 2 - 독일)

전문가 1에 의하면 프랑스는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진로 결정 단계에서 학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시행 및 진로결정 과정의 좋은 예로, 학교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는 진로지도 이런 것이 부모와의 협의 과정에 있고, 물론 자율권을 침해하진 않지만, 진로교사가 프랑스에 다 있고요. 진로를 전담하는 교사가 따로 있고요. 아이들의 성적과 희망 진로와 부모와 한 서너 단계를 거쳐서 최종 진로는 학교와 같이 결정을 해요. 부모가 원한다고 상급학교를 다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전문가 1 - 프랑스)

나. 교육방법

미래교육을 위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의 교수 방법적 측면은 무엇을 배우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아는 방법, 어떻게 탐구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교육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방법에 대한 관심 확대는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자료 등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고차원적 사고능력 및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자료 및 방법의 및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1) 통합적 교수 방법

어떻게 가르치는가의 문제는 학습자의 잠재능력을 얼마나 끌어내고 발휘하는가와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종합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습자 중심 활동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온오프 융합, 주제간 융합, 협력학습 등 통합적 교수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 4, 5는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되는 교육방법 활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싱가포르에서는 교육방법의 혁신이 실제 수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고 수업 운영 방식으로 프로젝트, 체험, IT 자료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학습 창조, 의사소통 교육과정 항상 이런 문제 해결을, 조직적인 사고 역량 창의적 분석적 혁신적 관점, 이런 것들을 중시 (중략) 그래서 교육의 구조를 바꾼다 라든지 그래서 추론이나 프로젝트 작업, 특별 활동 같은 것을. (전문가 4 - 싱가포르)

국가 전체적으로 하던 것이, IP핀 번호를 받으면 교육부로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 받기도 하고 심화 학습 문제 풀이도 하고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교사가 어떤 식으로 수업에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문제 까지도 디지털 교과서가 되어있어요. (전문가 5 - 미국)

전문가 1은 프랑스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며,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프랑스 시민교육은 교과목으로 존재해요. educarion civic. 시민교육은 주로 사회교사가 해요. 교과서가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재로 있습니다. (전문가 1 - 프랑스)

전문가 5와 8은 교과서로 가르치고자 하는 접근은 지식을 분절적으로 교수한다는 한계가 있고, 실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간 육성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우리는 너무 파편화가 돼서 교과목들이 정해져 있고 교사완성이 트레킹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개선 방향에 교원 양성하는데 있어서도 복수나 다원적으로 풀어놓지, 교과목도 쪼개져 있지만 알고 보면 통합 될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은데요. (전문가 2 - 독일)

미국의 경우를 본다면 social study, Language, Math, Science 이렇게 영역별로 해놓고 그 안에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문예부분이 있고 토론도 하는 것이예요. 교육방법하고 평가가 다 아우러져 있는데, 토론을 하는데 social civic value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작문을 시키고 (전문가 5 - 미국)

앞으로는 통합적 접근, 융합적 교수를 통해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현재 지식 전달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융합적 교수법의 시작은 통합 가능성이 큰 영역별 통합 교과로 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양성으로 이어질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2) 지역사회 연계

전문가 1과 5는 프랑스와 미국에서 행해지는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을 소개하였다.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문화예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즐기면서 익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마을 공동체’ 교육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교육 개혁에 토론, 다문화, 스팀, 예술 교육도... 캘리포니아에서도 굳이 음악, 미술 선생님을 국가가 채용하거나 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너무 즐기면서 잘 하게끔 펀드 레이징도 다 되는 문화가 정착되어서 (전문가 5 -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

회에 스포츠 센터와 다양한 문화 예술의 기반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지역사회의 기관이, 시청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아이들 학교 끝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갑니다. (전문가 1 - 프랑스)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특강이나 인력 지원 등 일회성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 활동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기관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진정한 공동체적 협력의 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본다.

다. 교육제도

교육제도 측면에서는 교육 불평등 감소를 위한 모두를 위한 교육, 학습자 맞춤형 교육, 입시제도, 교사의 질 향상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1) Education for all - 모두를 위한 교육

전문가 1, 2, 3은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불평등 감소 노력을 제시하였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조성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동반되고 있다. 특히, 이민자 가정 자녀의 교육적 소외와 학습 격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민자 가정 자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7년에 프랑스 교육이 중점으로 두어야 할 것, 핫 키워드로 나온 것이 교육 불평등의 감소 (중략) 그 중에서 이민자의 아이들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중략) 주로 기초 교육 단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교사들을 훨씬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전문가 1 - 프랑스)

교육 격차 이것이 독일도 2000년 결과에 나온 것이 특히 다문화 가정들의 아이들이 성적이 위태해진 것이예요. 그리고 이게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일제로 전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문가 2 - 독일)

전문가들이 언급한 교육 불평등 감소 방안은 예산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교사 인원을 늘리고, 기초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습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모든 학생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회 전체적인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구조를 좀 바꾼다던가 아니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학교의 시간을 반일제에서 전일제로 전환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교육 소외계층을 학교에서 보듬어 주고자 하는 노력이겠죠. (중략) 2007

년에 액션 플랜이라는 것이 중요한 데, 특히 사회통합이라고 하는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이예요. 교육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균형 있게 발전하려고 하고 특히 그 안에서 경제 계층, 부모의 계층에 따라서 워낙 성적 차이가 나니까 (전문가 2 - 독일)

유럽 교육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차원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은 이주민에 대한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적 소외와 사회적 소외는 순환적 관계이므로, 교육적 소외 해소를 통해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계층 뿐 아니라, 직업학교 등 외적으로 낮은 성취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학교 등을 일반학교와 통합하면서 학교통합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 노력도 이루어졌다.

사회 인식이 술래를 가면은 거기 다니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구분하는 것 같으니까 외형적으로 이것을 없애고 하나의 학교에서 졸업장은 3개가 존재하는 것이예요. 이 안에서 아이들을 분리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간다. 사회통합 교육 측면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그 안에서 내적 분할을 시도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맞게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전문가 2 - 독일)

2007년에 국가적 액션플랜이 나오죠. 거기서도 보면 교육이 맨 앞에 있어요. 특히 거기서 강조한 것은 아이들에게 맞는 독일 사회를 만들자 (중략) 특히 액션 플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이예요. 교육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전문가 1 - 프랑스)

전문가 3은 영국의 학교 전체적 성장을 언급하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국에서는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의 성장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노력도 이루어졌다. 학교 지원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은 개인의 성장을 물론이며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열악한 지역의 환경과 생활 개선은 국가 전체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기반이 된다.

이주민들이 사는 곳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에듀케이션 액션즈 정원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모방해서 열악한 지역에 재정을 투입하고 (중략) EIC(Excellence in Cities)가 시티에 굉장히 열악한, 빈곤한, 그리고 성적이 낮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투자를 통해서 학업 성취를 올려요 (중략) 영국은 개인 성적 보다는 그 지역의 학교가 모두 오를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잘 나가는 학교들이 노하우를 지역에 전수해주는 과정에서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많이 썼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두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기니까 한편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같이 질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나갔고요. (전문가 3 - 영국)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에서 장애학생은 장애 판정을 받은 의료적 개념을 내포하며 교육

소수자로 인식된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학생으로까지 확대하여 포괄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OECD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각지대 아이들 특수 교육이라 부르지 않고 special needs -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으로 넓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각지대 아이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예요. (중략)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disadvantaged 되는 아이들. 문화적으로 결핍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그래서 at risk 장애 위험이 있는 아이들까지 함께 고려해요. (전문가 6 - 통합교육)

전문가 6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우리와 다른 민족성,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통합의 노력과 더불어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나. 학습자 맞춤형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특성을 배려하는 맞춤형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 특성과 수준에 맞는 개별화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주민 아이들의 학업 격차를 말씀드렸는데요. 프랑스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이주민 아이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 1 - 프랑스)

복지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각 개별화 수업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개인의 맞춤형, 적성이라든지 특성에 맞는 수업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예요. 그러다보니 차이가 생기니까 서로 더불어 같이 보완하겠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영국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전문가 3 - 영국)

전문가 1과 3은 영국과 프랑스의 학습자 중심 교육이 수준별 수업, 보조교사,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 등의 실제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교육 정책과 사례를 설명하였다.

실제로 영국에는 grouping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잘하는 그룹이 있고 나머지는 보통이고 조금 떨어지는 애들 이렇게 배치가 섞여 있어요.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아야 하는 것을 20분 동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개별 수업이예요.(중략) 좀 못하는 애들은 어시스턴트 티처가 따라 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예요. (전문가 3 - 영국)

교사 수를 늘려서 최대한 학생들을 세부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7. 9월 초 1학년 기준 교사 한명당 학생 12명,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 부분을 더 강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에서는 아이들의 다양성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키워드고요. 교사들이 아이들의 개별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교사-학생 수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1 - 프랑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교수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현장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실제적 지원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다. 입시제도 개선

전문가 1에 의하면 프랑스 진로교육은 고등교육과 직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등 엘리트교육 대상자를 선발함과 동시에 전문적 직업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학문적 잉여인력이 최소화 되며, 실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바칼로레아가 일종의 자격시험이에요. 그래서 고등교육은 대중교육과 엘리트 교육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랑제꼴이 엘리트 교육이고요. 그랑제꼴은 직업 교육 고등 학교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기술자, 고급 기술자 기르는 것, 행정 고급 인력 기르는 것, 이런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전문가 1 - 프랑스)

영국의 진로교육에 관한 전문가 3의 의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대학 수학(修學) 능력을 평가하는 입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의 성취보다 입학 후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를 수 있는 학문적 성취 역량과 잠재력을 평가한다.

대학 가고자 하면 A레벨 시험을 쳐야 하는데요. (중략) A레벨 시험 자체가 다 써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성식 문제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도 솔직히 말해서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루 보는 것이 아니고 10일 봐요. 그러니까 3~4과목을 시험치지만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중략) 면접에 의해서 탈락이 결정돼요. 한국 학생들은 대체로 성적은 좋은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면접을 몇 시간을 하니까, 자기 소개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것을 예리하게 파고들면서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심층 면담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전공의 교수들이 전공 면접을 하니까 잠시 공부를 해서 베퉼치기를 하기에는 무리죠.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잠재능력이 뛰어난 사람 대학수학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이에요. (전문가 3 - 영국)

입시제도는 초·중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임.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는데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좋은 교육을 실천하고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입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라. 교사의 질 향상

교육의 질은 교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사의 질 향상은 수업의 질 향상, 학교 교육의 질 향상, 국가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교수법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교사의 질 향상입니다. 교사의 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교사 교육은 굉장히 강조하고요, 초등학교는 1년에 18시간이 교사 재교육이 의무입니다. 이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아이들을 이해해야 하고 그게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 교사 전문 대학원에서 총괄해서 반드시 프로그램을 반드시 모든 교사가 받아야만 교사가 가능하고요. 연수를 대학원에서 제안하는 것이예요. (전문가 1 - 프랑스)

전문가 1에 따르면 프랑스는 교사 양성 기관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교육실습을 1년간 받으면서 학교 현장에 대한 감각을 기르며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이러한 양성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지녀야 할 인성, 지식, 태도, 수업기술, 생활지도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로 임용된 이후에도 선배 멘토 교사로부터 정기적인 교사 재교육, 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질 제고 노력이 동반되고 있다.

프랑스는 교사 교육 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프랑스는 대학원을 나와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학부 과정에서 학사 학위를 대상으로 교육학에 대한 특별한 훈련, 이 특별한 훈련은 현장이 1년 우리나라 견습교사 처럼 받아야 하고 프로페셔널하게 교사 교육 대학원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 1 - 프랑스)

교사들한테 테드강의 같은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교육하는데 활용하라고 한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 4 - 싱가포르)

또한, 전문가들은 교사의 역량 강화에 대해 강조하였다. 교사 양성과정에서 습득한 전문성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수자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교사는 수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교사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 교육활동이 다르게 전개되고, 학습 효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사 연수나 교사 성장을 위한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전문성 신장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 교육법을 강조하는 것도 교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까가 중요해서, 단순히 무슨조를 짜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교사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거기(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중점)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 1 - 프랑스)

우리나라 수석교사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레슨 스테디라고 해서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교사들끼리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들이 학교마다 활성화 되어있는 모습도 있었어요. (전문가 4 - 싱가포르)

2. 교육 선진국의 교육 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

가.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형 교육 비전 수립

미래 교육은 지속발전가능성의 맥락에서 목표가 설정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형 교육 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패러다임의 전환

정보통신기술과 각종 스마트 기기의 발달은 교육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각종 기술과 담론들이 팽배한 사회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보와 통신의 발달은 교육의 콘텐츠를 확산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교육 내용의 확산은 정보통신을 활용한 지식 습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배우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배우며, 어떻게 탐구하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로 교육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사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수업은 매우 일반적이죠. 근데 한국 사회가 안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이고 지식적인 수업이죠. 미래교육 패러다임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1 - 프랑스)

2)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 육성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전제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기 보다는 어떠한 미래 환경에서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미래형 인간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이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사회에 다양한 미래 비전 교육 담론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미래가 정해져 있고 그런 미래에 적응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방식, 오히려 미래는 불확실성이고 우리가 디자인하고 기획할 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들을 기획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가는데 미래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 1 - 프랑스)

미래교육을 지금 문제가 이거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비전을 제대로 그려놓고 함께 살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현상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접근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하면 결국 땀질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2 - 독일)

나. 교육 정책 개선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적 문제 상황들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 입시를 위한 공부, 답습과 정체의 교육 문화 등 다양하다. 따라서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1)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은 입시 문제와도 연결된다. 학교 교육을 통해 획득하는 성적과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교육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공동체들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학교 교육 신뢰도 제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입학 사정관 전형도 미국 모형을 따내고 하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은 (중략) 고등학교에서의 평가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핵심은 고등학교라는 것이죠. 우리 시사점은 고등학교에 평가와 수업과 그 포지션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사실 대학이 그 학생을 어떻게 다 평가를 해요. 고등학교 교사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이에요. 교사가 평가한 것에 굉장히 신뢰를 하고 (전문가 5 - 미국)

2) 대입제도 개선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이 대입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길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성적만을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 입시제도는 학습자를 성적의 노예로 만들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를 기르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습자의 역량과 태도,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을 하라고 하면 인성교육 하느라 인성이 망가졌다라든지 이렇게 현장에서는 애기하니깐 그게 pressure가 되고 비교과적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체제가 되려면 결국은 평가에서 잡아내야 할 것 같고 대입제도 개선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1 - 프랑스)

한번 지나간 교과성적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게 대학가는 길에 치명타가 되는데 독일은 총 양만 정해져 있어요. 몇 학기 성공적으로 이수한 과목 이렇게요. 그래서 실수하면 다시 복원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우리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 2 - 독일)

3) 교사 양성 방안 개혁

우리나라의 교사 양성 정책은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하면 교원 자격증이 자동 발급되고, 시험 성적에 따라 교사 임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성적 위주의 선발은 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독일은 교사들이 학교 다닐 때 교원실습을 엄청 강화해서 우리처럼 한 학기 실습을 나가요. 그리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1차 국가고시를 패스했다고 해줘요. 그리고 2차가 실습을 나가는 것이죠. 그거는 18개월 이상이죠. (전문가 2 - 독일)

교사는 지식의 양에 따라 선발되어서는 안되며, 교사로서 필요한 인성과 자질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선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 양성기관에서도 전문성 확보라는 지식 측면과 더불어 교수학습 방법 측면의 실제적인 교육이 행해질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다. ‘Education for all - 모두를 위한 교육’ 실천을 위한 풍토 조성

교육 불평등 감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과 이어지는 중요한 교육적 기반이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천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소외계층이나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고 수용하는 교육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간을 육성하는 의미가 있다.

whole school approach. education for all 장애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을 고려한다는 universal design처럼 이 안에 있는 힘든 아이들까지 끌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whole school approach가 학교를 전체적으로 주도해나가는 것이에요. 장애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경쟁적인 구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전체적인 학교의 풍토나 문화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조금 안되는 아이들은 소집단으로 묶어내고 거기서도 또 안되면 intensive 하게 한 두 아이들을 걸러내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려깊게 가져거든요. (전문가 1 - 프랑스)

실제로 우리 풍토하고 관계있는 것 같아요. 아까 SEN(special education needs)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금 특수학교 짓겠다니까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우리 동네에 왜 이런 것이 들어오냐 (중략) 정책적으로도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이 다니는 학교가 더 성적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SEN학생들을 얼마나 받았느냐는 오히려 그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하고 달라요. (전문가 3 - 영국)

라. 교육의 중심 타워 필요

교육의 중심타워는 교육 정책, 실행, 연구, 교사 연수 등을 총괄하며 현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싱가포르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이 NIE에서 벌어져요. 우리나라로 치면 교원대랑 평가원이랑 개발원이랑 다 같이 있는 것이에요. (전문가 4 - 싱가포르)

그 대학교는 매칭하는 것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요. 교원 양성도 그렇더라고요. 필요한 숫자만큼을 양성해 내서 우리처럼 잉여 인력을 많이 남기게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교과와 교육학이 굉장히 맞물려서 협업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전문가 6 - 통합교육)

현재 우리 교육은 통합, 일원화 되어 있지 못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정부 부처 간의 중복지원, 교육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등 교육 정책의 실행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교육

중심 타위의 존재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중복과 배제를 방지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실현의 기반이 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연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환경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발전을 위한 장기 플랜 마련으로 교육의 사회화, 평생교육 실현의 장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 결 론

지금까지 교육 선진국의 미래교육 동향을 전문가 FGD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 선진국의 동향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제도 세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내용 측면에서 교육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교육내용의 큰 영역은 시민교육과 진로교육으로 분석되었다.

교육방법적 측면에서 교육 선진국은 교수 방법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것은 무엇을 배우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아는 방법, 어떻게 탐구하고,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교육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심은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학습자의 고차원적 사고능력 및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신장시킨다. 또한, 통합적인 교수 방법 적용과 지역사회 연계 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제도 측면에서는 교육 불평등 감소를 위한 ‘Education for all’, 학습자 맞춤형 교육, 입시제도, 교사의 질 향상 노력 등 네 가지 영역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모멘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교육 선진국의 교육 동향을 통해 전문가들은 미래 교육이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목표가 설정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므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전제하거나 미래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어떠한 미래 환경에서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미래형 인간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이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적 문제 상황들에 대한 고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 입시를 위한 공부, 답습이 반복되고 있는 교육 문화 등 다양하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성취하는 것이 대입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됨을 교육하는 데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교육 불평등 감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과 이어지는 중요한 교육적 기반이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천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풍토 조성도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소외계층이나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고 수용하는 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을 육성하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 선진국 교육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다양성 및 개별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안을 고안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단순한 교과 지식 습득이 아닌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역량 중심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공동체적인 측면의 시민교육의 활성화이다. 학습자들이 속한 사회는 물론이고, 세계 속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세계시민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고 참여할 줄 아는 민주시민 교육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세계 유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강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방향이다.

셋째, 세계의 변화와 트렌드에 부응하며 감성과 문화 창조를 강조하는 문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감수성 함양 교육이 중심이 되며,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행할 줄 아는 문화예술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아울러 언어는 물론 나아가 문화를 읽고 쓸 줄 아는 리터러시교육을 포괄한다. 리터러시는 단순히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능력 측면에서 더 나아가 인간과 사회, 문화의 변화에 적응하고 발전을 유도하는 있는 주요 역량으로 확대되고 있다.

넷째, 변화에 대처하는 역량 중심 교육의 채택과 수행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대처하여 직업탐구 역량이 강조되며, 성취 지향적 교육과정으로부터 과정 중심, 협력을 중시하는 역량 강화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해야 한다. 역량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단순 기능의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학습자의 역량 강화는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에 대한 관심의 전환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배운 지식이 전이되고, 활용되며, 생활의 장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여기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혁신을 시도해왔다. 이러한 준비들이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래교육의 담론 형성이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인 변화의 속도와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준비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된다. 또한, 교육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비전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벗고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한 변화의 방향과 담론 형성에 본 연구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임한나(2018). **질적 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계보경, 소효정, 이중순, 박범주(2011). Education 3.0 해외 미래학교 정책동향. KERIS 이슈리포트 연구자료 RM 2011-1.
- 국제미래학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 교육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서울: 광문각.
- 김진숙(2017).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교육 방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연구부.
- 조규복(2016). 주요국의 미래학교 동향과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교육정책포럼.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68&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240489>
- 조성남(2006). 노인부모부양에 관한 기혼자녀세대의 인식 - 초점집단토론(FGD)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3, 139-157.
- 한국교육개발원(2016). 미래사회 전망과 교육구상. 제95차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이슈리포트]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교육을 말한다 : 미래교육정보포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연구부. 19-26.
- UNESCO(2006). Road Map for Arts Education. The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building creative capacities for the 21st century.
- UNESCO(2010).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The seco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 UNESCO(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 and learning objectives.
-
- 접수일 2018년 6월 20일 / 수정일 1차 2018년 7월 25일, 수정일 2차 2018년 9월 21일 / 게재확정일 2018년 11월 20일
 - 교신저자 : 윤현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bomin0924@hanmail.net

Abstract

Future Education Trends in Educationally Developed Countries using FGD Research Method

Kim Youngsoon* · Yoon Hyunhee** · Lee Younghee***
Inha University* ·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ducational trends in educationally developed countrie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vision of future education in Korea. FGD (Focus Group Discussion) research method was adopted to conduct the research. For the FGD, six experts were invited to the discussion. FGD analysis resul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education contents, education methods, and education system. In terms of contents of education, civic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were emphasized, and integrated teaching method and community-based education were actively carried out. On the institutional side, it emphasized learner-centered education that emphasized individualized education and reduces education inequ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of a central administration supervises the policy orientation through the reduction of educational inequality and the education policy and operation. Various examples of educationally developed countries ar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vision of sustainable future education. Future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reference to overseas cases an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ducational policies that are appropriate to situations in Korea and present the future vision of Korean education

Key Words : Educationally Developed Countries, Educational Trends, Future Education, FGD